

유방 침범을 주소로 한 유육종증 1예

전주 예수병원 내과
이은영, 황민호, 임성민, 이영재, 선인오

배경/목적 : 유육종증은 원인불명의 비건락성 유상피세포 육아종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성 질환으로 주로 피부 및 인과선을 비롯한 모든 장기가 침범될 수 있다. 특히 유방 침범을 주소로 한 유방 유육종증은 지금까지 보고에 따르면 매우 드물며 임상적으로 유방선암과 혼동되어 감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저자들은 유방 결절을 주소로 내원하여 유방 유육종증으로 진단된 1 예를 경험하였는데, 아직 국내 보고가 없어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29세 여자로 2003년 5월부터 생리후 심해진 좌측 유방의 통증, 부종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25세경부터 재발성 임파선비대가 발생하였으며, 그 외 알레르기력, 가족력 등에 있어 특이 사항은 없었다. 계통 문진에서 체중감소, 근육통, 관절통, 구강궤양 등의 증상은 없었다. 이학적 검사에서 좌측 유방에서 약 10 cm 크기의 통증을 동반한 종괴가 촉진되었고 양하지의 1 x 2 cm 크기의 결절 홍반이 관찰되었다.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7700 /\text{mm}^3$, Hb 13.2 g/dL , 혈소판 $370,000 /\text{mm}^3$, Ca^{++} 8.9 mg/dl , AST / ALT $48 / 67 \text{ IU/L}$, 류마티스 인자 음성, 항핵항체 음성, HIV Ab 음성, VDRL 음성이었다. 복부초음파, 심장초음파, 뇌 전산화 단층 촬영등 방사선 검사등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갈륨 동위원소 검사상 좌측 유방과 서혜부에서 강한 섭취를 보였다. 확진을 위해 실시한 조직 생검상 비건락성 육아종이 동반된 만성 유선염 소견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유방 유육종증으로 진단 받은후 특별한 외과적 절제술 없이 prednisone 10 mg/day 와 hydroxychloroquine 300 mg/day 를 투약 받았는데 추적 검사상 유방의 종괴 및 결절홍반은 소실되었고 현재 외래 경과 관찰중이다.

류마티스 질환에서 고용량 면역글로불린 정주요법의 효과

한양대 류마티스병원 윤재희*,양선영, 김일, 홍철호, 이혜순, 엄완식, 김태환, 전재범, 유대현, 배상철

면역글로불린주사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가와사키병, 중증 근무력증 등과 같은 질환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으나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몇몇 선택된 류마티스 질환에서 면역글로불린주사의 효과를 살펴보기로 했다.

일정기간동안 한양대 류마티스병원에 입원해서 고용량 면역글로불린 정주요법을 받은 2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적방법으로 조사하였다. 29명의 환자는 각각 루푸스 18명, 피부근염 8명, Adult onset still's disease (AOSD) 2명, Henoch-Schonlein 자반증 1명이었다. 각각 면역글로불린을 체중당 0.4g/kg 정맥주사로 5일간 투여받았다. 투여전후의 임상양상 및 실험실 결과를 통해 질병의 활성도를 평가하고 스테로이드 감량여부등을 비교하였다.

29명의 환자중 총 16명의 환자(루푸스 11명, 피부근염 4명, AOSD 1명)에서 임상 양상의 호전이나 스테로이드 용량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이중 2명의 환자(루푸스 2명)는 경제적 여건으로 사용을 중단하였다. 부작용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는 2명(루푸스 1명, 피부근염 1명)으로 모두 피부 발진이 발생하였다. 루푸스의 경우에는 고열, 피부발진, 혈관염,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에 효과가 있었고 루푸스신염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다. 염증성 근염에서는 피부발진과 궤양, 근력강화등 전신적인 증상에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었고 AOSD에서도 역시 고열과 피부 발진에 효과를 보이며 스테로이드를 줄여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루푸스나 피부근염과 같은 류마티스 질환에서 동반된 감염이나 고열이 감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혹은 부작용으로 인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스테로이드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고용량의 면역글로불린의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겠다.